세상의 모든 책들 : 사고전서에 얽힌 이야기들

1. 사고전서의 편찬

- '사고(四庫)'는 책을 경사자집(經史子集)의 네 가지로 나누는 관행을 따른 명칭이다. 경전(經典), 역사서(歷史書), 제자서(諸子書), 개인 문집(文集) 등을 뜻하는 이 분류는 오랫동안 중국 책의 기본적인 체제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 건륭제(乾隆帝, 재위기간 1736∼1795)가 사고전서관(四庫全書館)을 설치하여 국내외의 서적을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건륭 37년(1772) 1월 4일의 일. 건륭제는 전국에 명을 내려서 중요한 전적을 수집하도록 하였으며, 집안에 있는 중요한 장서를 바치도록 함. 같은 해 12월 안휘성(安徽省)의 학정(學政)이었던 주균(朱筠)이 이 명에 호응하여 강희제 당시에 편찬되었던 영락대전(永樂大全)의 교열과 주요 전적을 발췌하여 필사할 것을 주청(奏請). 이 사건이 바로 사고전서 편찬의 출발.
- 건륭 38년(1773) 2월, 문연각직각사(文淵閣直閣事) 겸 병부시랑(兵部侍郎)을 지내고 있던 기윤(紀昀)을 총찬관(總纂官)에 임명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이렇게 시작된 사고전서 편찬 프로젝트는 10년 세월 동안 방대하면서도 꼼꼼하게 진행.
- 중국 내의 수많은 전적들이 북경으로 운반되었고, 2,800여 명을 상회하는 사람들이 이 일에 매달려서 작업. 게다가 이름만 들어도 쉽게 알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석학들, 예컨대 대진(戴震), 왕념손(王念孫), 요내(姚鼐), 기윤(紀昀), 옹방강(翁方綱), 주균(朱筠) 등 당대 최고의 학자 36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총인원은 모두 4천 명에 달함.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원이 동원되어 편찬된 사고전서는 본격적으로 편찬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건륭 47년(1782) 4월에 첫 번째 사본이 완성. 이 때 사고전서 안에 수록된 책은 3,457종 79,070권, 존목(存目)[1] 6,766종 93,556권, 합계 10,223종 172,626권이나 되는 방대한 양.
- 첫 번째로 완성된 사고전서는 황궁인 자금성 안에 있는 문연각(文淵閣)에 보존하였는데, 이것을 우리는 문연각본 사고전서라고 함. 이것을 다시 필사하거나 중요한 책들을 베껴서 6부를 더 만들어서 모두 7부의 사고전서가 완성. 그 완성된 시점이 건륭 52년(1787)이니, 사고전서가 시작된 지 햇수로 15년이 지난 뒤의 일.

2. 사고전서의 소장처

① 문연각본(文淵閣本). 사고전서 중에서 가장 정본(正本)에 해당. 문연각은 자금성 안에 있는 건물. 중화민국의 성립과 함께 국민당 정부는 이 책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당시 최고의 출판사였던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영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책들을 상해 절강도서관으로 옮겨옴. 그러나 그 계획이 실현되기도 전에 국민당은 공산당과의 내전에 돌입했

1) 내용에 보탬이 없거나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책, 착오가 많은 책 등은 책 제목만 기록하고 그 개략적인 내용을 간단히 덧붙였다. 그것을 '존목(存目)'이라고 한다.

고, 결국 패퇴하면서 중경(重慶)으로 옮겼다가 대만으로 국민당이 물러나면서 이 책 역시 대만으로 옮겨짐. 현재 대만 고궁박물원에 소장.

② 문소각본(文溯閣本). 문소각은 심양(瀋陽) 고궁(故宮) 안에 있는 건물. 이 사본은 1914년 북경으로 잠시 옮겨진 적이 있었는데, 1925년에 다시 심양으로 돌아감. 이것은 1931년 일본이 일으킨 9.18 사변 때 약탈되어 사라진 뒤 행방 묘연.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 뒤 러시아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심양의 도서관으로 옮겨져 잘 보존되고 있음.

③ 문원각본(文源閣本). 문원각은 황실의 원림(園林)이라 할 수 있는 원명원(圓明園) 안에 지어진 건물. 이 사본은 청나라 咸豊 10년(1860) 북경으로 진주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 의하여 훼손.

④ 문진각본(文津閣本). 문진각은 박지원의 『열하일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열하의 행궁(行宮) 안에 있음. 자금성의 문연각본이 상해를 거쳐 국민당 정부의 손으로 들어가자, 1925년 문진각본을 북경으로 옮겨 보관하다가 지금은 북경도서관에 소장.

→ 문연각, 문소각, 문원각, 문진각에 소장된 사고전서를 흔히 북사각(北四閣) 혹은 내정사각(內廷四閣)이라고 함.

⑤ 문회각본(文滙閣本). 양주(揚州) 대관당(大觀堂)에 소장. 이 사본은 청나라 말기 도광연간(道光年間)에 홍수전(洪秀全)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태평천국의 난을 맞아 소실되고 만다.

⑥ 문종각본. 진강(鎭江) 금산사(金山寺)에도 문종각(文宗閣)을 짓고 사고전서 한 부를 소장하는데, 이것을 문종각본이라고 함. 그러나 이 역시 아편전쟁을 빌미로 하여 1841년(도광 21) 쳐들어 온 영국군에 의하여 1차 피해를 입었다가, 1853년 태평천국의 난 때 태평군이 진강을 함락시키는 와중에 소실.

⑦ 문란각본(文瀾閣本). 문란각은 항주(杭州) 성인사(聖因寺)에 있던 건물. 이 역시 태평군이 항주로 집입했을 때 이미 태반이 소실. 그러나 항주 지역의 장서가였던 정신(丁申), 정병(丁丙) 형제에 의하여 흩어진 책 중 극히 일부인 3,140권이 수집되었는데, 1880년 문란각이 다시 중수되었을 때 기증. 이후 꾸준히 흩어진 것들을 수집하고 보완해서 1925년 무렵에는 거의 완질이 모으게 되었고, 이것을 절강성립도서관에 수장. 이후 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경으로 옮겨졌는데,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함.

→ 남삼각(南三閣) 혹은 강절삼각(江浙三閣). 이들은 모두 건륭 52년(1787)년에 필사가 완성되는데, 이렇게 일곱 부의 사본이 완성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고전서는 편찬 과정에서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필요로 했던 것.

- 북사각과 남삼각 일곱 부의 사고전서 외에도 또 하나의 원고가 존재하는데 사고전서를 만들었을 당시 최초의 원고. 방대한 분량의 이 부본(副本)은 문원각본 사고전서와 함께 원명원에 소장되어 있었으나, 그러나 이 역시 1900년(광서 26년), 의화단이 외국인을 살해했다는 것을 빌미로 영불연합군이 북경에 진주했을 때 함께 소실.

3. 사고전서 편찬의 의미

- 방대한 양의 총서를 편찬하겠다는 건륭제의 생각은 강희제의 영락대전(永樂大典)이나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과 같은 편찬의 전통을 이은 것이기도 하지만, 대단한 인문학적 열정이 있었음.

- 많은 선비들이 학문적 기틀을 닦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계기. 청나라 시대의 고증학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연결. 게다가 넓은 중국 땅에 흩어져 있던 희귀 도서를 모아 놓음

으로써 해당 분야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독서와 집필에 편리하도록 하여 중국학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음.

- 학문적 탄압으로 작동. 건륭제는 수집된 책 속에서 만주족을 오랑캐로 기록하거나, 명나라에 우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 모두 없애버리도록 함. 그 과정을 거쳐서 사라진 책은 총 24차에 걸쳐 583종 13,682권.

- 중국 역사상 가장 잔인한 문자옥(文字獄). 많은 책들 중에서 여러 종류의 이본이 있으면 이들을 자세히 교감하고 정리해서 선본(善本)을 확정하는 일을 했지만, 그 때문에 사라진 다양하면서도 중요한 이본 역시 상당수.

4. '김간(金簡, ?~1795)'이라는 인물

- 사고전서를 구하고자 했던 정조의 열정

- 1783년 2월, 동지사(冬至使) 겸 사은사(謝恩使)로 중국을 다녀오던 정존겸(鄭存謙), 홍양호(洪良浩) 등은 2월 24일 거류하(巨流河)에 이르러 사흘이나 체류하게 된다. 사고전서를 운반하는 짐이 이곳에 도착했는데, 강은 온통 얼음 조각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배를 띄우지 못하고 얼음을 깨서 길을 트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방대한 짐에 대해서도 간략한 보고를 정조에게 올리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고전서는 한 질이 36,000권이고 총목(總目)이 200권이나 된다고 했다. 정조는 사고전서의 편찬 소식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고, 그것을 구해보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겨우 7부를 만들었던 것이므로 정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었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정조실록』같은 부분에 바로 김간(金簡, ?~1795)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 1782년 11월 10일 밤, 자금성 안에 있는 회랑에서 불이 났다. 실수로 발화한 것이었지만 20여 칸 이상이 불에 타서 없어졌다. 당시 호부시랑이었던 김간은 임금의 명으로 10일 만에 다시 건물을 복원하였고, 이에 건륭제는 후한 상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정존겸, 홍양호 등의 보고에 들어있다.

- 이후 정조실록에는 김간의 이름이 여러 차례에 걸쳐 등장하는데, 흥미롭게도 그의 선영이 조선에 있다는 언급이 있다. 1778년(정조 2년) 3월 3일자 기사에 의하면, 외교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김간에게 연줄을 대서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 때 김간 등은 '우리들의 선조 묘(墓)가 조선에 있는데 어찌 감히 근본을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마땅히 힘을 써서 잘 도모해 주겠다'고 말을 한다.

- 김간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사고전서 편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고전서 편찬위원회에 해당하는 사고전서관(四庫全書館)의 구성은 정총재(正總裁), 부총재(副總裁), 총열처(總閱處), 총찬관(總纂官), 총목협감관(總目協勘官), 총교처(總校處), 한림원제조처(翰林院提調處), 무영전제조처(武英殿提調處), 등록(謄錄) 등 19개 부서에 모두 4천 여명을 상회하는 인원이 배속되었다.[2] 정총재에는 건륭제의 아들이 3명이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관심을 쏟는 것이었다. 정총재는 일종의 명예직과 비슷한 자리였다면 실제로 일을 총괄하면서 편찬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부총재

2) 사고전서관의 직제(職制) 및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김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내용은 변인석의「사고전서와 한국인 부총재 김간에 대하여」(『동양사학연구』 제10집, 동양사학회, 1976)에서 이미 자세하게 조사하여 소개하고 있다. 약간의 세부적인 자료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나온 김간 관련 자료 중에서 가장 상세한 것이라 하겠다. 이 글에서 김간을 소개하는 내용 역시 변인석의 논문을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급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부총재로 10명의 이름이 올라있는데, 거기에 김간의 이름이 보인다. 말하자면 사고전서관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편찬을 돕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 김간의 숙모는 건륭제의 후궁이었으며 사고전서관의 정총재로 참여했던 건륭제의 제11황자인 성친왕(成親王)이 바로 김간 숙모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김간은 자신의 총명함에 더하여 외척이라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그의 조부 김상명(金尙明)도 옹정제(雍正帝) 당시에 고위 관직을 지내면서 조선의 외교 채널로 그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김간에 대한 정보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정조도 꽤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여러 기록을 통해 보면 김간은 꼼꼼하면서도 신중하고, 광명정대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언제나 빠르고도 정밀하게 일처리를 해서 건륭제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다. 건륭제의 명을 받아 『요금원삼사인지관명(遼金元三史人地官名)』을 개역(改譯).

- 사고전서와 관련해서 그가 기여한 부분은 바로 인쇄 분야. 그는 사고전서라는 방대한 책을 쉽게 인간(印刊)하기위해 그와 관련된 매뉴얼에 해당하는 『흠정무영전취진판정식(欽定武英殿聚珍版程式)』이라는 책을 편찬. '취진판'이란 바로 활자를 지칭하는 말. 말하자면 활자를 이용하여 사고전서를 인출(印出)하자는 것. 그는 활자본이 목판본보다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 책을 인출한 뒤에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제작비를 경감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들어서 활자로 인쇄할 것을 주장. 중국에서도 송나라 이후에 활자본이 활용되고 있었지만, 이것은 아마도 조선에서의 활자 인쇄 기술이 활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 실제로 벤저민 엘먼(Benjamin A. Elman)은 그의 저서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에서 조선 출신의 활판 기술자인 김간에게 명하여 당시 새롭게 발견된 희귀 도서에 대한 재출간 작업을 감독하도록 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3] 조선의 인쇄 기술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다시 살펴야겠지만, 적어도 조선인 김간이라는 인물이 사고전서 편찬 과정에서 인쇄와 관련된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만은 기억할 일이다.

- 1785년(정조 9년) 2월 1일,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박명원(朴明源)은 예부에 표문과 자문(咨文) 등 외교 문서를 바쳤을 때 육비지(陸費遲)가 받았다고 보고한다. 아울러 이 당시 김간에게 황제가 태학을 짓게 한 사실을 함께 아뢴다. 이 때 김간의 직위는 공부상서(工部尙書)였으니, 청나라 조정의 최고위 관직을 지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육비지는 사고전서를 편찬할 때 교열 업무를 총괄하는 총교관(總校官)을 맡던 사람이다. 박명원은 1780년 박지원을 데리고 북경에 사신을 다녀오기도 한 인물이니, 연암 그룹 인물들에게도 분명히 사고전서와 관련된 정보라든지 김간에 대한 이야기가 알려졌을 것이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박지원은 자신의 『열하일기』 「구외이문(口外異問)」에서 "요즘의 취진판(聚珍板)으로 내려오는 이 각본(刻本)은 호부 시랑(戶部侍郞) 김간(金簡)이 감독 간행한 것"이라는 기록을 남긴 바 있다. 그만큼 김간은 조선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진 청나라 관료였고, 그의 손에서 사고전서의 중요한 일들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5. 사고전서 속의 조선 관련 자료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책으로는 『고려도경(高麗圖經)』(전40권)을 들 수 있다. 원래 제목은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으로, 송나라 때 고려에 사신으로 왔던 서긍(徐兢)이 편찬한 책이다. 이 책은 지리류(地理類)로 분류되어, 외국의 사정을 확인하는 자료로 채택된

3) 벤자민 엘먼,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양휘웅 옮김, 예문서원, 2004), 335쪽.

것으로 보인다. 고려 인종 원년(1123), 송나라 휘종(徽宗)이 파견한 사신의 일원으로 고려를 방문했던 서긍은 약 1개월 가량 송악에 머물면서 자신이 견문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려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서술한다. 고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 시기의 고려의 모습을 그림을 곁들인 설명이 체계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조선사략(朝鮮史略)』(전12권)도 우리의 눈길을 끈다. '제요(提要)'에 의하면, 『동국사략(東國史略)』이라고도 부르는 이 책은 명나라 때 조선 사람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것이다. 조선 초기 권근, 하륜(河崙) 등에 의해 편찬된 바 있는 『동국사략』과는 제목이 같지만 다른 책이다. 권근 등에 의해 편찬된 『동국사략』은 단군 시대부터 삼국 시대까지의 역사만을 기술한 데 비해, 사고전서에 수록되어 있는 『조선사략』 혹은 『동국사략』은 단군에서 시작하여 고려 공양왕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간략히 요약하여 서술하고 있다. 작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려말의 사적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사고전서 편찬자들은 외국의 역사서 중에서는 좋은 책으로 평가하였다. 단군으로부터 조선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미 고려 시대 일연(一然)의 『삼국유사(三國遺事)』나 이승휴(李承休)의 『제왕운기(帝王韻紀)』에서 명기한 바 있지만, 그러한 인식이 조선 시대에는 널리 인정되고 있었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게 하는 책이라 하겠다.

그 외에도 조선의 풍속과 지리, 제도 등을 간략히 소개한 작자 미상의 『조선지(朝鮮志)』(전2권), 명나라의 사신으로 조선을 방문하여 지었던 동월(董越)의 『조선부(朝鮮賦)』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간략히 제목과 개요만 실려있는 것으로는 명나라의 황홍헌(黃洪憲)이 지은 『조선국기(朝鮮國紀)』(전1권), 명나라 정약증(鄭若曾)이 편찬한 『조선도설(朝鮮圖說)』(전1권), 동월의 『조선부』를 다른 방식으로 편집한 『조선잡지(朝鮮雜志)』(전1권), 『고려도경』을 다시 편집한 『고려기(高麗記)』 등 상당히 여러 편이 제목을 올려놓았다. 워낙 방대한 양이라 꼼꼼이 살펴보아야겠지만, 조선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사고전서 안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